

근로자 속성 및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 경향 분석

2022. 11. 30

이규성 연구원

CONTENTS

I. 디폴트옵션 선택이 퇴직연금 운용변화를 가져올까?

II. 위험등급별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경향

1.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등급별 선택 비중
2. 근로자 속성과 디폴트옵션 위험등급 선택 경향의 관계

III. 디폴트옵션 선택 경향과 퇴직연금 자산배분의 비교

IV. 결론

< 요약 >

- 미래에셋투자자와연금센터가 시행한 ‘직장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인식 조사’ 결과에서 위험등급별, 상품 유형별 선호 등의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경향 및 근로자 속성과 연관된 특징을 중점적으로 파악해봤음.

-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 관련 속성과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등급별 선호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응답자 연령대]** 나이가 어릴수록 디폴트옵션으로 위험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 나이가 어릴수록 은퇴시점과 멀리 있고, 투자상품 중심으로 운용하여 연금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니즈가 클 것으로 추론됨.)

 - **[퇴직연금 운용성향의 적극성]** 퇴직연금의 연 목표수익률 및 투자상품 편입 비중에서 파악되는 운용성향이 적극적일수록 위험등급이 더 높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컸으며, 퇴직연금에서 운용 중인 상품 개수가 많을수록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에서의 위험선호도가 높았음.
(* 운용 중인 상품 개수가 많다면 위험대비 수익추구 성격이 다양한 투자상품들을 통한 운용이 활발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 **[연금 운용·관리에 적극적인 태도]** 1)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지시 빈도나 2) 연금 계좌 확인 빈도가 잦을수록 연금 운용·관리에 적극성을 띤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금 운용·관리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위험등급이 높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컸음.

- 조사대상 근로자의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별 선택 비중과 퇴직연금의 자산배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저위험등급 이상의 상품을 선호하는 근로자 전반으로 디폴트 옵션의 투자상품 선택 비중이 퇴직연금의 평균적인 투자상품 편입 비중보다 뚜렷하게 높았음.

-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퇴직연금 운용을 방치해온, 소위 ‘연금운용 무관심층’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의 효과적인 자산배분 변화에 초점을 맞춰 디폴트옵션을 보다 신중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I. 디폴트옵션 선택이 퇴직연금 운용변화를 가져올까?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은 자산배분전략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연금자산이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돼 운용되고 있거나 대기성자금 등으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퇴직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임.

(* DC형 퇴직연금에서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중은 2021년말 기준 79.3%에 달하며, 대기성 자금은 총 10조원 수준으로 전체 연금자산의 3.4% 비중을 차지)

- DC형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 대상의 서베이 결과, 투자상품의 디폴트옵션 지정 선호가 강했고, 이는 기존 퇴직연금에서의 투자상품 비중보다 높아*, 퇴직연금의 자산배분이 디폴트옵션을 통해 좀 더 투자지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엿보임.

(*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 중 투자형을 선택한 비중은 60%로, 조사대상 근로자의 퇴직연금의 투자상품 운용비중 평균인 36%를 크게 상회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근로자의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경향과 퇴직연금 운용 관련 속성에 연관된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함.

- 먼저 조사대상 근로자의 위험등급(고위험/중위험/저위험/초저위험)별 상품선택 결과를 통해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시의 위험선호 내지 투자 성향의 분포를 파악해 봄.
- 조사대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속성이 위험등급별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경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근로자의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경향과 기존 퇴직연금의 자산배분 현황을 비교하여, 근로자 속성에 따른 디폴트옵션 선택 시의 유의점을 파악해 봄.

〈직장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인식 조사〉

구분	내용
조사 대상	30~59세 직장인 1,200명 (30대/40대/50대 각 400명) - 서울/수도권, 6개 광역시 및 세종시 거주자 - 100명 이상 근무 직장 근로자(공무원 제외) - 현행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조사 기간	2022년 9월 22일~10월 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 시행)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웹/모바일 조사
조사 내용	-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현황 -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해도 점검 -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지형 및 특성 파악

- 퇴직연금자산 기준으로는 중위험등급 이상 선택 비중이 55.4%로 전체의 절반을 상회해, 연금자산 금액으로 가중평균했을 때의 평균적인 위험선호 성향이 개별 근로자 기준으로 단순하게 집계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등급 체계>
1. 고위험: 2등급(높은 위험) 및 3등급(다소 높은 위험) 펀드
2. 중위험: 4등급(보통 위험) 펀드
3. 저위험: 5등급(낮은 위험) 펀드, 원리금보장 ELB 및 저축은행 예금 등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4. 초저위험: 6등급(매우 낮은 위험) 펀드, 은행 예·적금 등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 포트폴리오는 편입상품별 위험등급을 투자비중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한 값(고위험 1.9~2.6등급, 중위험 2.7~3.4등급, 저위험 3.5~4.2등급, 초저위험 4.3~5등급)으로 디폴트옵션의 위험등급을 결정함.

2. 근로자 속성과 디폴트옵션 위험등급 선택 경향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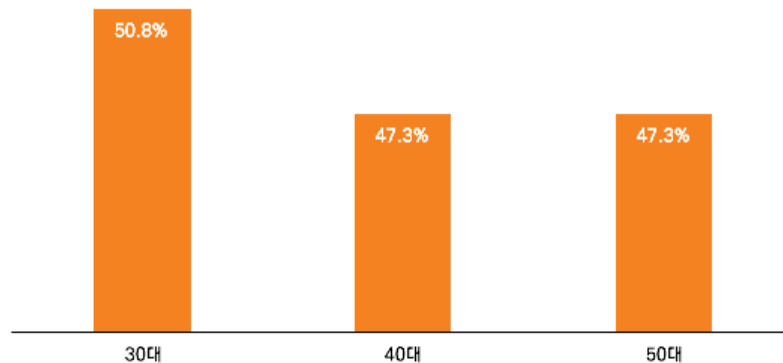
- ◎ 조사대상 근로자의 속성과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등급 선택 경향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 퇴직연금 운용·관리와 관련한 행태적 속성이 디폴트 옵션 상품의 위험등급 선택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영향요인)로부터 종속변수(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분석 기법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방법임.
· 본 분석은 응답자의 일반특성, DC형 퇴직연금 가입 관련 정보, 퇴직연금 운용·관리의 행태적 속성 등을 가입자의 위험등급 선택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 설명(독립)변수로 설정하였음.
1) 응답자의 일반특성: 연령, 성별 구분, 결혼여부, 월소득, 근속연수
2) DC형 퇴직연금 가입 관련 정보: 가입기간, 가입 금융기관의 업권, 퇴직연금자산 규모
3) 퇴직연금 운용·관리의 행태적 속성: 퇴직연금의 투자상품 운용비중 및 목표수익률 수준, 운용 중인 상품의 수, 운용지시 경험 및 빈도, 연금계좌 현황 등의 확인 빈도
· 위험등급 선택 경향은 4단계의 선택 결과를 2개 범주로 구분해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중위험과 고위험)일 때 '1', 투자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저위험, 초저위험)일 때 '0'값을 가지는 종속변수로 설정했음.
· 회귀식 결과에서 설명변수의 회귀계수의 부호가 '+'일 경우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비례관계로, 부호가 '-'일 경우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반비례관계로 해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연령대의 회귀계수 부호가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해석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중위험/고위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연령대] 응답자의 일반특성 중 연령대(30대, 40대, 50대)의 경우 대체로 나이가 적을수록 디폴트옵션으로 위험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적을수록 위험선호 성향이 크다는 통념에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은퇴시점이 멀리 있어 가급적 투자상품 중심으로 운용하여 연금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니즈가 클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도표 2〉 응답자 연령대별 디폴트옵션 상품의 중위험등급 이상* 선택 비중



* 중위험등급 및 고위험등급 상품

◎ [퇴직연금 연 목표수익률 및 투자상품 편입 비중] 퇴직연금의 연 목표수익률 및 투자상품의 편입 비중에서 파악되는 운용성향이 적극적일수록 위험등급이 더 높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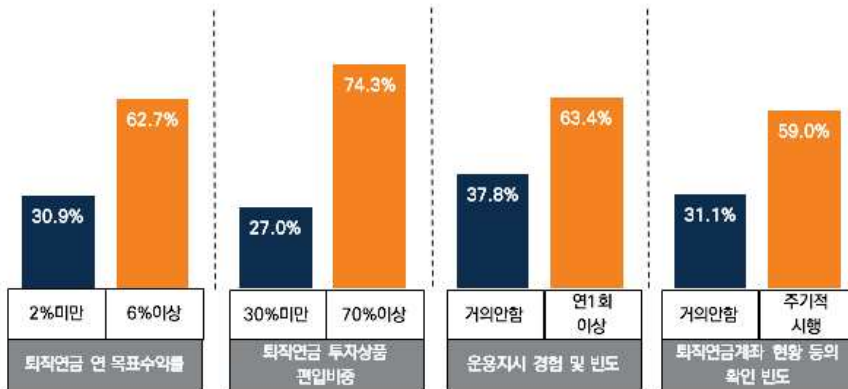
－ 퇴직연금에서 추구하는 연간 목표수익률 수준이 높게 설정돼 있을수록, 퇴직연금에서의 투자상품 편입 비중이 높을수록 운용성향이 적극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험등급이 더 높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컸음.

◎ [퇴직연금에서 운용 중인 상품 개수] 퇴직연금에서 운용 중인 상품 개수가 많을수록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에서의 위험선호도가 높았음.

－ 운용 중인 상품 개수가 많다면 원리금보장형 상품 여러 개를 운용하기보다는 위험대비 수익추구 성격이 다양한 여러 투자상품을 통해 운용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 [연금 운용·관리의 적극성]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지시 빈도나 연금계좌 현황의 확인 빈도가 잦을수록 연금 운용·관리에 적극성을 띤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금 운용·관리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위험등급이 높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컸음.

〈도표 3〉 퇴직연금 운용·관리 관련 행태적 속성별 디폴트옵션 상품의 중위험등급 이상* 선택 비중



* 중위험등급 및 고위험등급 상품

〈도표 4〉 근로자의 속성과 디폴트옵션의 위험등급 선택 경향의 관계(회귀분석 결과 요약)

설명변수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등급 선택 경향과의 관계
응답자의 일반특성	연령별(30대/40대/50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위험등급 선택 가능성 ↑
	성별, 결혼여부, 직장규모, 월소득, 근속연수	유의한 관계없음
퇴직연금 가입정보	가입기간, 가입 금융기관, 퇴직연금자산 규모	유의한 관계없음
	퇴직연금 연 목표수익률	목표수익률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등급 선택 가능성 ↑
퇴직연금 운용·관리의 행태적 속성	퇴직연금 투자상품 편입비중	투자상품 편입 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등급 선택 가능성 ↑
	운용 중인 상품 개수	운용 중인 상품 수가 많을수록 높은 위험등급 선택 가능성 ↑
	운용지시 경험 및 빈도	운용지시 빈도가 잦을수록 높은 위험등급 선택 가능성 ↑
	퇴직연금계좌 현황 등의 확인 빈도	계좌확인 빈도가 잦을수록 높은 위험등급 선택 가능성 ↑

Ⅲ. 디폴트옵션 선택 경향과 퇴직연금 자산배분의 비교

- 조사대상 근로자의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별 선택 비중을 퇴직연금의 기존 자산배분 상태와 비교해 보면, 디폴트옵션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한 비중이 퇴직연금에서의 평균적인 투자상품 편입 비중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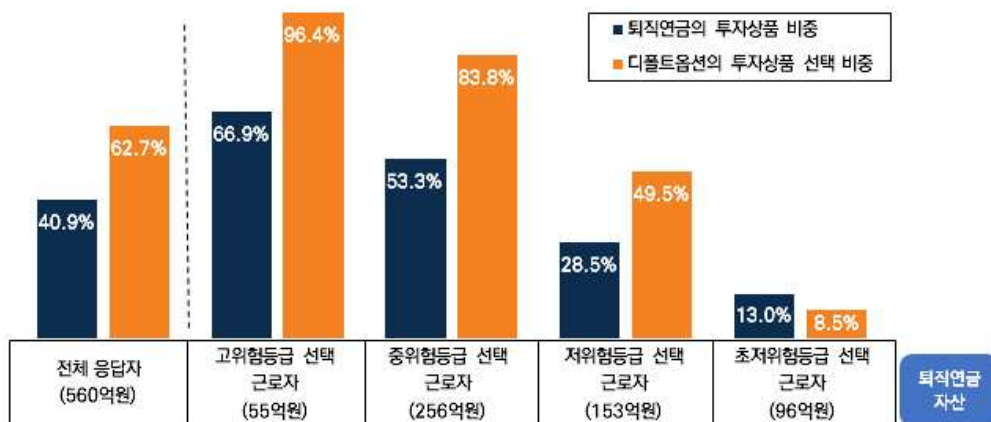
(* 응답자가 선택한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 중 TDF, Balanced Fund, Stable Value Fund, SOC 펀드 및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 혼합형 포트폴리오는 모두 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원리금보장상품 및 원리금보장상품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등급 선택 경향에 따라 살펴보면, 저위험등급 이상을 선호하는 근로자 집단에서 모두 디폴트옵션의 투자상품 선택 비중이 퇴직연금에서의 평균적인 투자상품 편입 비중보다 높았음.

– 저위험등급부터 고위험등급까지를 선호하는 근로자들은 디폴트옵션의 투자상품 선택 비중이 보유중인 퇴직연금에서의 평균적인 투자상품 편입 비중보다 적게는 21% 포인트에서 많게는 30.5% 포인트 높게 나타났음.

- 반면 디폴트옵션으로 초저위험등급 상품을 선택해 매우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는 디폴트옵션의 투자상품 선택 비중이 보유한 퇴직연금에서의 평균적인 투자상품 편입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도표 5〉 퇴직연금의 투자상품 비중과 디폴트옵션의 투자상품 선택 비중 비교



* 각 비중은 조사대상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자산을 기준으로 집계했음.

- 디폴트옵션으로 초저위험등급 상품을 선호하는 근로자는 디폴트옵션의 투자상품 선택 비중이 보유한 퇴직연금에서의 평균적인 투자상품 편입 비중보다 4.5% 포인트 낮은 8.5%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하였음.

◎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이거나 퇴직연금 운용을 방치하는 속성이라면 별다른 고려 없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디폴트옵션으로 초저위험등급 상품을 선호하는 집단은 퇴직연금 운용·관리의 행태적 속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이거나 퇴직연금 운용을 방치하는 성향일 가능성이 높음(<도표 6> 참조).
- 이러한 집단일수록 디폴트옵션을 별다른 고려 없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단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도표 6> 디폴트옵션 위험등급 선호도 별 퇴직연금 운용·관리의 행태적 속성의 특징

	고위험등급 선택 근로자	중위험등급 선택 근로자	저위험등급 선택 근로자	초저위험등급 선택 근로자	조사대상 근로자 전체 평균
퇴직연금 연 목표수익률*	8~9% (19%)	4~6% (23%)	2~4% (28%)	2~4% (35%)	2~4% (24%)
퇴직연금 투자상품 편입비중	59.3%	47.7%	28.1%	12.3%	35.7%
운용 중인 상품 개수	4.7개	4.3개	3개	2.4개	3.5개
운용지시 경험 및 빈도**	연1회 이상 (65%)	연1회 이상 (52%)	거의 안함 (66%)	거의 안함 (79%)	거의 안함 (59%)
퇴직연금계좌 현황 등의 확인 빈도***	주기적 (53%)	비정기적 (42%)	거의 안함 (39%)	거의 안함 (41%)	비정기적 (37%)

* 각 집단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수익률 구간 (괄호 안은 선택 비중)

** 각 집단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빈도, 운용지시 경험 및 빈도 문항에서 운용지시를 연 1회 미만 혹은 한번도 해본적 없는 경우는 '거의 안함'으로 분류함.

*** 각 집단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빈도, 퇴직연금계좌 현황 등의 확인 빈도에서 계좌상태를 1~2번 정도 확인했거나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안함'으로 분류함.

IV. 결론

-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 관련 속성과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등급별 선호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① 응답자 연령대(30대, 40대, 50대)

- 나이가 어릴수록 디폴트옵션으로 위험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나이가 어릴수록 은퇴시점과 멀리 있고, 투자상품 중심으로 운용하여 연금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니즈가 클 것으로 추론됨).

② 퇴직연금 운용성향의 적극성

- 퇴직연금의 연 목표수익률 및 투자상품 편입 비중에서 파악되는 운용성향이 적극적인일 수록 위험등급이 더 높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컸음.
- 또한 퇴직연금에서 운용 중인 상품 개수가 많을수록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에서의 위험 선호도가 높았음(운용 중인 상품 개수가 많다면 위험대비 수익추구 성격이 다양한 투자상품들을 통한 운용이 활발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③ 연금 운용·관리에 적극적인 태도

- 1)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지시 빈도나 2) 연금계좌 확인 빈도가 잦을수록 연금 운용·관리에 적극성을 띤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금 운용·관리 태도가 적극적일 수록 위험등급이 높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컸음.

- 조사대상 근로자의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별 선택 비중과 퇴직연금의 자산배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저위험등급 이상의 상품을 선호하는 근로자 전반으로 디폴트 옵션의 투자상품 선택 비중이 퇴직연금의 평균적인 투자상품 편입 비중보다 뚜렷하게 높았음.

- 다만, 초저위험등급 상품을 선택한 근로자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이거나 퇴직 연금 운용을 방치하는 속성일 수 있고, 이 경우 디폴트옵션도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단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퇴직연금의 자산배분 상태가 잘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음.

-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퇴직연금 운용을 방치해온, 소위 '연금운용 무관심층'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의 효과적인 자산배분 변화에 초점을 맞춰 디폴트옵션을 보다 신중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 근로자 속성과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등급 선택 경향의 관계(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등급 선택 경향과의 관계(회귀계수)
응답자의 일반특성	연령대별(30대/40대/50대)	-0.032*
	성별(남성:-, 여성:+)	-0.034
	결혼여부(기혼:-, 미혼:+)	0.011
	직장규모	-0.009
	월소득(만원)	0.006
	근속연수(년)	0.010
DC형 퇴직연금 가입 관련 정보	가입기간	-0.007
	가입 금융기관(은행 대비)	
	보험사	0.016
	증권사	0.052
	퇴직연금자산 규모	-0.0002
퇴직연금 운용·관리의 행태적 속성	퇴직연금의 연 목표수익률	0.028***
	퇴직연금 투자상품 편입비중	0.004***
	운용 중인 상품 개수	0.041***
	운용지시 경험 및 빈도	0.055***
	퇴직연금계좌 현황 등의 확인 빈도	0.034**
상수	0.733***	
R^2	0.221	
관측치 수	1,184	

1) ***,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2) 위험등급 선택 경향은 4단계의 선택 결과를 2개 범주로 구분해 투자위험을 감소하는 성향(중위험과 고위험)일 때 '1', 투자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저위험, 초저위험)일 때 '0' 값을 가지는 종속변수로 설정했음.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자산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01 글로벌로 분산투자 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03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04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05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47] 5060 세대의 의료비 지출 및 보험보장 실태, 2020.9
- [48]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분석 및 시사점, 2020.11
- [49] FAANG을 넘어 BBIG로, 2020.11
- [50] 저금리·장수시대의 도래와 美 연금시장의 대응, 2020.12
- [51] 5가지 키워드로 본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와 미래, 2020.12
- [52] 코로나19가 가져온 퇴직연금 시장의 5가지 변화, 2021.11
- [53] MZ세대의 은퇴인식과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2021.12
- [54] 늦어지는 은퇴,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비하라, 2022.3
- [55] 적립금운용위원회와 IPS 도입, DB 적립금 운용을 리셋하다, 2022.4
- [56] 은퇴준비를 위한 인출계획 수립과 인출계획서 활용, 2022.9
- [57] 3050 직장인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의 5가지 특징, 2022.11
- [58] 대한민국 4050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서베이, 2022.11

투자자산운용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